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오주복 신임 부산지회장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16번째 닻을 올린 부산지회 오주복 지회장을 비롯해 김정호·송유일·이경호·양도희 부지회장 등 집행부가 밝히는 앞으로의 청사진이다.

이 말 속에는 전국 제2의 도시로서 위상에 걸맞게 또 전임 지회장들이 오늘날의 부산지회를 일구어 낸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진일보된 지회 운영을 선보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확실히’라는 말이 나타내듯 16대 집행부가 밝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의욕 그 자체이다.

“주된 사업 계획은 지회 전산 시스템 구축과 세미나 활성화, 제과인 소식지 발간, 공동구매 확대 등입니다.”

오주복 신임 지회장은 향후 부산 지회의 사업 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매월 14개 지부장을 비롯 임원진이 모임을 갖고 지난 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각 임원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전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회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 각 지부와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부마다 최소한 팩시밀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임기 내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오주복 지회장이 펼쳐 보이는 전산망 구축 이외에 제과인을 위한 소식지 발간도 업계 초유의 계획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부산지회는 협회 소식, 제품 등을 내용으로 월 약 2천부를 제작해 부산 및 경남의 제과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별도 취재기자를 채용하거나 외부 제작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부산지회는 구매, 조직, 홍보 등 분야별 담당 부지회장 제도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집행부 전원이 참여해 추진하는 통합 체제 방식을 택한 것도 이번 16대 집행부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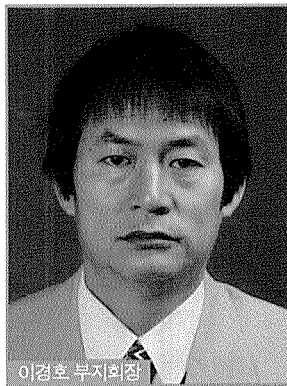
오주복 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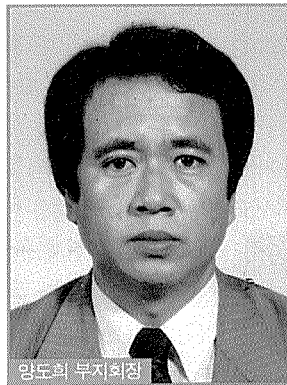
김정호 부지회장



송유일 부지회장



이경호 부지회장



양도희 부지회장

“컴퓨터를 이용해 회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 각 지부와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부마다 최소한 팩시밀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임기내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오주복 지회장을 비롯한 16대 집행부는 기술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 자체 기술 세미나를 자주 개최할 예정이며 각 지부의 월례회에 지회의 기술분과위원회가 제품을 만들어 참석해 알림으로써 신제품 보급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회원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공동구매 사업도 16대 집행부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다.

최근 부산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집행부가 들어선 부산지회는 야심찬 사업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며 더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열린 지회' 를 만들겠습니다

윤주경 신임 대전지회장

“전체를 이끄는 지회장이 되고 보니 지부장때와는 많은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간 지회에 관여해 온 경험도 있고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니 최선을 다해야죠.”

신임 윤주경 지회장은 요즘 '문턱없는 지회' 만들기 구상에 여념이 없다.

윤지회장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것 중 기술 발전 도모, 회원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결과적으로 이를 토대로 회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회원이 협회에 호감을 갖게 하고 지회 사무실을 내집처럼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열린 지회' 만들기의 일환 중 하나다.

“먼저 지회가 회원을 위해 있는 만큼 회원이 찾아오면 모든 민원을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윤지회장은 회원 방문시 직원의 접대에서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진 지회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다.

또 윤주경 지회장은 대전 지역 기술 발전을 위해서 자체 기술 세미나를 활성화할 계획을 실행 중이다. 현재 젊은 기술인들이 작년 결성한 재과기술연구회를 통해 외국 기술인을 초청해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무실 내에 믹서, 오븐 등 세미나 시설을 갖추으로써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로써 회원이 지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밖에 최근 우리 업계의 현안인 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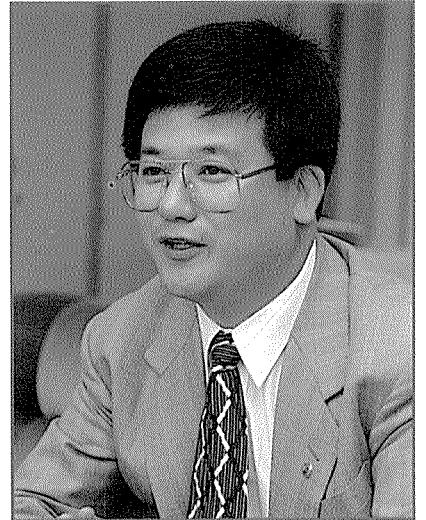
“제가 서구 지부장으로 있을 때 지역내 유성농고와 자매결연을 맺고 실습 재료와 기술 지도로 자격증을 취득케 해 학생들을 기술인으로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해 인근의 영동농고, 청양농고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회장은 4년전에 시작한 이 자매결연 결과 현재 대전지역에 43명이 기술 인력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에는 업주가 된 사람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지회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지회장은 회원 화합을 위해 10월경 체육대회를 각 지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 지부장이 두달에 한번 정도는 회원 업소를 방문토록 해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는 등 회원과 좀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윤주경지회장은 요즘 분주하다. 지회를 이끄는 지회장으로 각 지부의 회의에 참석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또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전 지회를 육성 발전 시키온 역대 지회장 등 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전 지회는 올해 정기 총회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조직을 이끌어 나갈 선장을 맞이했다. 젊은 윤주경 지회장은 회원에게 사랑받고 회원을 위한 지회, 기술 발전과 인력난 해소, 회원 화합을 골격으로 한 문턱없는 지회 만들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누구나 부담없이 지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열리지회' 를 만들겠습니다.**

**또 세미나 시설 구비와 자매결연을 통해
기술 발전 및 인력 수급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